



## 예언서의 사회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대화이론(Dialogism),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을 중심으로\*

박경식(목원대)

### 1. 서론

대한민국은 2017년 대통령 탄핵에 이어 과면이라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치적 사건을 겪었다. 이후의 사회와 정치 기조를 보면 모든 청문회와 국회에서 정치 그룹들이 이토록 서로 극과 극을 달리며 타협과 일치가 힘든 적이 있었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긴장하도록 선의의 경계와 감시를 해야 하는 정치 기관들이라 할 것이며 나라의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최종 결단하는 중요한 국회의 요소이고 국민의 대표들이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일컬어 “정치적 블랙홀”에 빠졌다고 평가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334)

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회가 잘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이 88%를 넘으니, 이러한 정치의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는 몸살을 앓는 형국이고 결국 이는 국민이 몸살을 앓게 되는 모습이다.<sup>1</sup> 국회의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점 휴업상태인 국회라 일컬으며 의장으로서 자괴감과 모욕을 느끼며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사상이 문제임을 지적했다.<sup>2</sup>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에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이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을 이끌어가는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2019년 선정한 사자성어는 바로 공명지조(共命之鳥)였다. 공명지조란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의 운명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나의 머리가 없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지로는 서로 공멸하게 된다는 뜻으로 한국사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평가하며 표현한 것이다. 이는 곧 갈수록 극단적으로 심화하는 정치와 이념 양극화 문제를 비판한 것이다.<sup>4</sup> 물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긴장의 요소로 작용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능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요즈음의 격렬한 정치적 대립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생산적 논의도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처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주제에서 다루려는 문제 제기와 필요성은 이러한 사회 상황을 살

1 허재영/정다빈/김석우/이재목, “이념적 양극화는 지속되는가?—19대 국회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의 경험적 연구—”, 『통일연구』 23집 2호 (2019), 33-37; 허윤철/박홍원, “필리버스터 시기 TV를 통한 이슈 접촉이 이슈 중요성 지각과 대면·온라인 의견 표출에 미친 영향”, 『방송통신연구』 105호 (2018), 118-147.

2 신문 기사를 통한 의견문 발표를 참고하라. 손일선, “극단의 정치 자괴감... 책임통감, ‘광장 대립’ 국회 존재의미 잃어”, 2019.12.16.,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53908>

3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론의 분열과 과열화된 대립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조형국,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담화 내용”, 2019.1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71500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71500001)

4 남정호, “갈수록 심화되는 정치 이념 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9.12.20.,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dxno=69960>

아가고 있는 신앙공동체와의 연결점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신풍속도를 설문 조사하여 지적하는 것을 보면 정치 공방이 가열되면서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합리적 근거나 일관성 없이 악플이나 적폐로 몰아가는 누리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sup>5</sup> 한 사회학과 교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문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익명성에 숨은 극단적 대결의 장이 됐다”라고도 지적했다.<sup>6</sup> 또한 안타까운 것은 최근 공공신학과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외부 공공 집회 등에서의 정치적 주장 발표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한국 종교계를 부정적 이미지로 사회에 비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 해석으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윤중은 이러한 문제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 혹은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치화된 일부 기독교 세력의 무분별한 과격한 행동은 기독교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그는 이상적 사회건설을 하나님의 정치라 제안하며 기독교인들의 “정의와 의” 찾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기독교 내부에서도 사회 정치적 현안들과 내부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러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도 역할을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이다. 교

5 이애리, “온라인 토론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과 개인 및 집단 정체성, 토론의 질 간의 영향 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21권 3호 (2019), 63-86.

6 김한민, “온라인 루머 행동에 대한 온라인 환경 요인의 영향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권 2호 (2020), 45-52;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달라진 한국의 신풍속도 중에서 익명성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라. 문병기, “탄핵 가결 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분야 신풍속도”, 2017.12.0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209/87651982/1>

7 유윤중, “정의’(δικαιοσύνη)와 ‘의’(ἠθικῆς, δικαιοσύνη)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정치와 한국교회의 정치적 책임”, 『구약논단』 79집 (2021년 3월), 308.

회에서는 오히려 사회정치적 토론이나 의견들은 다양한 의견 충돌을 양산하는 이슈로 규정하고 조심스럽게 혹은 기피하며 다루고 있고, 잘못된 온라인 문화와 같이 음지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토론할지언정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sup>8</sup> 어떠한 의견에 대한 상충성을 다루는 소극적인 사회적 태도나 익명성이라는 문화 유행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대립 구조 속에서 과연 기독교와 구약 성서는 성도가 살아가는 사회와 신앙공동체를 이해하는 충분한 종교적 지도역할과 해석학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종교성만을 강조하여 성서적 가르침을 이상적인 도덕으로 설정하고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인 사회 공동체를 세속적인 것으로만 규정한다면 또 다른 이념 양극화의 종교적 모습이 아닐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사회정치적 논쟁 속에 건강하게 지도하고 그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그들이 속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연구에서 예언서에서도 지금의 사회와 같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언자들의 상충 본문-일명 “칼과 보습” 본문(사 2:46; 미 4:3b; 율 3:10)-을 중심으로 사회인문학자 바흐친(Bakhtin)의 대화주의 문학이론(dialogism)과 성서학자 퓨웰(Fewell)과 스위니(Sweeney)의 상호텍스트 비평(intertextuality)을 대입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표현하는 본문들의 유기적 관련성과 적용을 위한 새롭게 읽는 예언서 읽기를 제안하였다.<sup>9</sup>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논의가 부족했던 사회정치학적 논쟁과 기독교 리더십의 유기적 관계와 적용에 대하여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로 역

---

8 신앙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사회정치적 토론과 충돌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성건,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715호 (2018년 7월), 30-41; 임걸, “정치사회적 책임공동체로서의 교회”, 『기독교사상』 49집 (2005년 6월), 258-279.

9 박경식, “예언자들의 담론에 근거한 통일 논쟁 방향 찾기-대화이론과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4, no. 4 (2020), 1-36.

사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미셸 푸코의 담론 이론(discourse theory)과 사회학과의 융·복합적 연구의 결정체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신흥 연구로서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sup>10</sup> 연구라는 방법론들을 주요하게 분석하여 그 방법론적 활용성을 조사하는 것에 있다.<sup>11</sup> 상호텍스트 연구는 성서학 전반에 걸쳐서 이미 적용이 되어있으나, 원론에 해당하는 대화 이론과 이를 확장하는 담론 이론 그리고 적용에 해당하는 상호맥락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스마고린스키(Smagorinsky), 플로리아니(Floriani), 알버스(Albers), 블룸(Bloome) 등의 언어 사회학적 주장을 중심으로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연구라는 이론적 체계가 활발히 연구 중이며 이를 분석해 본다.<sup>12</sup>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해해야 할 공공 신학(public theology)의 연구 주제와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안하려고 한다.

## 2. 예언서와 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

기독교 지도자의 리더십 고찰을 논할 때 먼저 종교와 사회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예언자들의 다양한 리더십이 자주 사용되어 졌었다. 그들의 사회 비판과 종교적 반성이 가득 담긴 텍스트들이 편하게 현대의 모습과 대입이

10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이라는 단어의 번역은 학계에서 'context'를 상황 혹은 맥락으로 번역하는 것에 근거하였다. 예를 들어, 접두어 'inter'와 함께 사용 시 어문학에서 '상호상황성'과 '상호컨텍스트성' 보다는 '상호맥락성'을 주로 사용하므로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따랐다.

11 Heinrich Bedford-Strohm, Florian Höhne, and Tobias Reitmeier,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Berlin: LIT, 2013).

12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의 이론적 방법론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Peggy Albers, Teri Holbrook, and Amy Seely Flint, *New Methods of Literary Research* (New York: Routledge, 2014).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Danna N. Fewell, *Reading Between Texts: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되므로 예언자들의 선포를 중심으로 신앙의 개혁을 위한 심판선고와 불신앙으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각 예언서의 메시지 연구 그리고 연대와 대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역사비평 연구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예언자의 역할이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경계하는 것이며 예언을 종교적 배교행위를 질타하는 도구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임상국은 이스라엘 예언자의 주요 역할을 왕조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여 민중의 고난과 외침에 부응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구원시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sup>13</sup> 또한 허셸(Heschel)도 예언자를 신적 파토스(pathos)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민중의 고난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자라고 주장했다.<sup>14</sup> 서명수는 사회적 운동과 기독교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예언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그리고 약자 보호를 위하여 사회의 불일치와 부정을 비평하고, 억눌린 자를 탄압하는 가진 자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들로 해석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논의들은 피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예언자들을 사회와 정치 기조의 해석가로 그리고 비판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사회정의와 윤리 그리고 사회법이 발전되어 완벽할 수는 없으나 법의 테두리에서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전문적인 대중 매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비판적 해석적 사고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부조리를 일관되게 비판하는 행위나 약자 보호를 위한 예언자 상은 여전히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현대적

13 임상국, “주전 8세기 예언의 사회학적 이해”, 『신학과세계』 41호 (2000), 39-40.

14 Abraham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3-31.

15 서명수, “김찬국의 ‘삶의 현장신학’의 구성과 성서적 배경-3·1운동과 출애굽 전승, 예언전승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7집 (2019), 101-124.

관점의 접근이 아니며, 실지로 이러한 민감한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토론을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 또 다른 접근은 예언서 각 권의 개별적 독특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배경을 연결하려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장일선은 “예언과 사회체제”라는 논문에서 과거 예언서 연구들은 “어떠한 사회적 실체가 예언을 창출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등한시했음을 지적하면서 예언과 사회체제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sup>16</sup> 예언자는 그가 서 있는 위치가 권력 중심부이냐 혹은 변두리이냐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의 각 예언서 역사비평 연구는 뉘(Duhm)과 폰라드(von Rad), 볼프(Wolff)와 같은 주요 학자들에 의해 한동안 대세를 이루었다.<sup>17</sup> 이러한 해석은 예언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에 따라 메시지가 달리 전파된다는 이해를 주었고, 하나의 일괄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정통신학의 성서해석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눈초리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의 사회학적인 배경 연구를 하는 역사비평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는 예언서에 대한 공시적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이다. 예언서는 많은 학자가 주장하는 것 같이 다성성(polyphony)을 가진 본문이고, 이러한 통시적 비평의 결과가 편집비평을 통한 공시적 비평과 어우러져 해석의 장을 넓히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16 장일선, “예언과 사회체제”, 『신학연구』 30집 (1989), 137-166.

17 예언자들의 역사비평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Bernhard Duhm, *Israels Propheten* (Tubingen: Mohr, 1922); Gerhard von Rad, *The Message of the Prophets* (San Francisco: Harper, 1972); Marvin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Joseph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James Nogalski, “Recurring Themes in the Book of Twelve: Creation Points of Contact for a theological Reading”, *Interpretation* 61, no. 2 (2007), 125; Aaron Schart, “The First Sec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Hosea-Joel-Amos”, *Interpretation* 61, no. 2 (2007), 138-139; Rainer Albertz, James Nogalski, and Jakob Wöhrle (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Berlin: Walter de Gruyter, 2012).

3) 이외에 예언의 역할과 예언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시적 비평으로 성서를 읽었던 다른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제한적인 주제와 관련된 것이며, 예를 들어 빈번한 단어(거룩한 전쟁, 야웨의 날 등)의 사용이 성서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은 소예언서의 최종 편집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언어학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접근, 그리고 이사야서의 여러 부분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예언서들과 어떠한 평행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다.<sup>18</sup>

아쉽게도 대부분의 연구는 마치 우리가 구약 성서의 예언서를 대할 때 한 예언자의 선포에 집중하여 해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예언서는 큰 틀에서 보면 짧거나 길은 여러 예언자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있는 모음집이며, 이러한 모음집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할 때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담겨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예언서 연구에서 최종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를 대화 이론에 입각한 예언자들의 대화로 해석하는 시도는 부족하였고, 필자는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요엘의 상층 본문을 연구하며 성서에서도 예언자들이 언어유희(pun)를 통하여 서로 다른 정치적 사고를 표현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마치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생각할만한 성서의 예언자들도 지금의 현실과 같이 다양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왜 그런 차이가 성서에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주장하였다.<sup>19</sup> 이 논문에서 통일 이슈와 관련되어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이념 양극화가 현대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

18 Bernhard Duhm, "Anmerkungen zu den zwölf Propheten", ZAW 31 (1911), 184-188; Hans W. Wolff, *Joel and Amos*, trans. W. Janze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7-8. 최근 논의된 소예언서의 편집과 공시적 접근에 대한 모든 동향 연구는 잘 정리된 다음을 참고하라. 구자용, "12소예언서의 이방 민족들-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5권 1호 (2019), 54-91; 박경철, 「한 권으로 읽는 구약성서」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210.

19 박경식, 윗글, 34-36.

아들여야 하고, 교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정치적 성향 발언 등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와 교회 내 공동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쟁의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토론은 주장하는 바가 달라도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는 해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흐친(Bakhtin)의 대화주의이론(dialogism)과 최근 발전된 성서학자들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이론 체계와 예언서와의 적용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언서 연구에서 통시적 비평에 치우친 해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시적 비평 특별히 상호텍스트성과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20</sup>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은 모든 본문들은 서로 대화하고 있는 자신과 타자라는 두 개념이 반드시 공존한다는 객체 인식을 시도한다. 바흐친은 모든 인식은 발화에 의해 결정되고, 발화의 대상과의 관계와 다른 발화가 포함되는 대화들로 표현한다고 말한다. 특별히 “타자의 단어를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서로를 반영”하며 각각의 발화(listening and responding)는 “담화적 소통 영역의 공통성에 의해서 서로 연관되는 여러 발화의 반향과 메아리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sup>21</sup> 그의 대화 이론을 전제로 하는 다성성(polyphonic) 개념은 포스트 구조주의의 미결정성 개념으로 확대되어 적용되었으며 많은 성서학자가 영향을 받았다.<sup>22</sup> 결국, 대화주의 이론의 요지는 주관화에서 벗어난 타

---

20 Marvin Sweeney, “Synchronic and Diachronic Concerns in Reading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Rainer Alvertz, James Nogalski, and Jakob Wöhrle(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Berlin: Walter de Gruyter, 2012), 21-33; Marvin Sweeney, “Sequence and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the Twelve”, in *Form and Intertextuality in Prophetic and Apocalyptic Literatur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75-188.

21 바흐친, *말의 미학*, 387-390.

22 오민석, 「현대문학이론의 길잡이」 (서울: 시인동네, 2018). 성서해석학의 다성성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Carol Newsom, “Bakhtin, the Bible, and Dialogic Truth”, *The Journal of Religion* 76, no. 2 (1996):

자 이해를 통한 객관화이다. 왜냐하면 개인 스스로만 존재하는 사회화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대전제로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타자 인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를 전제로 수정된 상호텍스트성 연구로 본문 간에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상호 관련성 가운데 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공시적 읽기를 통해 의미 발전이란 독립성이 아니라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3</sup>

그러므로 이전 연구의 주요 논지는 이사야, 미가, 요엘이 “칼과 보습” 본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현대의 독자들이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사회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음과 같다. 이러한 논쟁은 불필요하거나 금기시할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들이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공개적인 토론과 활발한 논의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교차점을 찾기 위하여 경청과 건강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논지를 가지고 역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독단적 주장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대화 이론과 상호텍스트성 연구를 접목하여 성서 본문을 읽게 되면 상충하는 예언자들의 대화가 수정되지 않은 채 성경에 존재하는 편집적 비평의 시도를 바라보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290-306; Sung Uk Lim, “Jonah’s Trans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Jonah from the Bakhtinian Perspective of Authoring and Re-author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 no. 2 (2008): 245-56; Phyllis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23 Mikhail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Mikhail Bakhtin,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H.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 (박종소/김희숙 옮김), (서울: 길, 2006); 저자와 내레이터 그리고 독자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용비평(reception criticism)의 구조를 허무는 바흐친의 이론들을 성서해석학에 대입하는 다양한 시도는 다음을 참고하라. Barbara Green, *Mikhail Bakhtin and Biblical Scholarship: An Introduction* (Atlanta: SBL, 2000).

### 3. 새로운 방법론의 분석과 확장

사회정치학적 논쟁과 관련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의 과제는 결국 지도자들의 사회 이해, 즉 종교가 신앙공동체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어떠한 선교적 관점으로 하라고 신적 명령을 받았으며 실천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법론으로 푸코(Foucault)의 담론이론(discourse theory)과 최근 발전 중인 상호맥락성 연구는 예언자들의 대화와 이에 대한 현대 사회적 적용 특별히 공공신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먼저 담론이론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는 대화이고 이 대화는 인식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마치 예언자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신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인식론의 대가 푸코는 그의 담론 이론에서 공시적 접근으로의 담론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맥락 안에서 “담론은 형성되어 있는 사회정치적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언어 활동”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담론은 현대로 올수록 그 의미가 확장되었지만, 푸코의 담론 개념은 너무 일상적이거나 과학적이 아닌 ‘지식적 언설’ 혹은 ‘무언가를 주장하는 기호들의 집합’을 나타낸다.<sup>25</sup> 그가 사용하는 인식의 구도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 인식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정한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해석이 일어날 때 언어적 조건과 배경

---

24 Michel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Éditions Gallimard, 2014);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원제는 Michel Foucault, *L'ordre du discours* (Paris: Galimard, 1971);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서울: 민음사, 2012). 원제는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1966); 디디에 에리본, 「미셸 푸코」 (박정자 옮김), (서울: 시각과언어, 1995). 원제는 Didier Eribon, *Michel Foucaul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25 미셸 푸코, *유티드*(1998), 159.

적 즉 사회적 조건들이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그는 이러한 상황을 고고학의 해석법과 연결하여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발현 중 담론이 중요한 요소이며 인식 발생의 시대와 상황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변화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푸코의 글 『임상의학의 탄생』에서도 그는 우리가 어떤 무의식적인 구조(문법적이 아니라 관계적) 안에서 인식하는가에 따라 인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담론이란 작용하는 그 시대에 형성이 되고(예를 들어 예언자들의 선포가 담론으로 형성되었을 때) 다시 현대 독자들의 해석 가운데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였다.<sup>27</sup>

이는 성서해석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즉 그의 담론이론은 대화주의 이론에서 발전되어 객체와 객체가 관계 맺는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서로의 글과 발화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계속되는 대화가 구성적 특징임을 이해하는 담화적 소통의 사슬 속에서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담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서는 패널 이야기로 읽어야 하며 그들이 다루는 주제는 공동체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인식이고 그들의 글로컬적인(자신들의 사회영역과 타 예언자를 포함하는 더 폭넓은 사회영역) 토론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주장한다. 특히 이들의 담론은 반드시 사회정치적 체계와 더 확장된 관계성을 지속해야 하는 언어 활동인 것이며 담론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담론이론을 발전 시켜 새롭게 사회 융·복합적 연구에서 필히 적용해야 할 것은 상호맥락성 연구이다. 구약 학계에서 상호맥락성 연구는

---

26 윗글, 88.

27 윗글, 89. 더 자세한 인식론은 다음을 참고하라. 미셸 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옮김), (서울: 인간사랑, 1996).

심히 미약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야 할 분과이다. 왜냐하면 상호맥락성 연구는 자칫 성서의 메시지를 그저 실생활에 적용 불가능한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인들의 모순적 신앙 태도를 점검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현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성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침과 실제적인 적용점을 지도하는지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상호맥락성 연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현실의 사회공동체를 이해하려는 접근이 부족하였다. 상호맥락성이란 본문(text)과 맥락(context)에 대한 구별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과 본문 사이(intertext)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더 넓은 의미에서 맥락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sup>28</sup> 이전의 사회학적 역사비평 접근에서 사용된 본문의 사회적 상황(맥락)을 고찰하는 연구는 역사이해를 위한 좋은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아쉽게도 각 예언서를 구별되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상호맥락성 연구에서 맥락이라고 해석되는 ‘context’는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 알브박스(Halbwachs)의 개념인 이미 학습 받은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의 중요성과 독자가 이해하는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에 의해서 반응하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sup>29</sup> 미국의 사회학자 코저(Coser)는 상황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집단기억이 작용하는 활동이며 집단기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중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0</sup> 예를 들어 어떠한 기억(memory)도 사람들이 영

28 Richard Meyer, Prisca Martens, Alan Flurkey, and Risa Udell, “Complicating Predictability: Textuality, Inter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Beginning Reading and Writing”, *National Reading Conference Yearbook* 47 (1998), 354-365.

29 Lewis Coser, *On Collective Memory: Introduction to Maurice Halbwach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2), 21; 텸빙의 심리학 기억개념은 다음을 참조하라. Endel Tulving, “Episodic and Semantic Memory”, Endel Tulving and Wayne Donaldson (eds.), *Organization of Memo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381-403.

30 Lewis Coser, *윳글*, 22.

위하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sup>31</sup> 서구 신학의 발전과 함께 지역 특색을 가진 나라들에서 신학의 상황화를 찾는 시도 가운데 맥락(context)을 탐구하는 이론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어문학과 사회학에서 해석에 대한 중요한 논지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서학에서 오히려 더욱 연구할 가치를 발견하였다.<sup>32</sup> 슈라이어(Robert Schreier)는 신학의 토착화와 지역화 문제를 다루며 서로 다른 문화권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역적 신학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문화란 결국 사회를 뜻하는 것이고 사회는 구성원들과의 전통적 맥락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가 유기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3</sup> 즉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는 신학은 모양은 있으나 반응(response)이 없는 것이며 신학화의 다양한 모델 중에서 슈라이어는 ‘맥락을 이해하는 모델’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선택한다. 그의 주장은 중요한 점을 부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이 담고 있는 많은 연결체가 사회와 문화라는 중요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문화학과 담론해석의 전통적 입장은 인간의 활동은 개인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화 교육을 담고 있는 사회적 실현이라고 정의한다.<sup>34</sup> 즉 사회화 과정이 인간 활동의 주요 요소이며 상호맥락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자가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특별히 이러한 맥락은 사람

31 윗글, 43.

32 Robert Schreier,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Orbis Books, 1985).

33 윗글, 1-21.

34 Camilla Wiig, Kenneth Silseth & Ola Erstad, "Creating Intercontextuality in Students Learning Trajectories", *Language and Education* 32, no. 1 (2018), 43-59; Michael Cole, *Cultural Psychology: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J. Lave, "Changing Practice", *Mind, Culture, and Activity* 19, no. 2 (2012), 156-171; B. Rogoff,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실체로 이해한다. 피(Pea)는 그래서 맥락을 “구성요소들의 물질적 배경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배경의 의미들”이라고 설명한다.<sup>35</sup> 그러므로 상호맥락성은 사회관계로 형성되는 사회학 개념이며 참가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인지작용의 소통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본문 내의 작용(textuality)과 확장된 본문과의 비교를 통한 작용(intertextuality) 그리고 간텍스트와 맥락을 연결하는 작용(intercontextuality)이 서로 맞물려 작용해야 한다.<sup>36</sup> 이러한 3가지의 요소들은 문학 해석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 중인 인문학 연구요소이다.

위에서 정리된 상호맥락성의 중요성은 바로 해석의 변화와 차이를 어떻게 갖게 되는가이다. 독자들은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다른 텍스트들과의 연결 고리를 먼저 떠올리며 간학문적 연결성(intertextual connections)을 사용하여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 그리고 동시에 독자들의 삶 속에 처한 맥락들을 본문과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맥락들의 충돌을 통한 저항 혹은 동질화 등의 영향을 거친 상호맥락적 활동(intercontextual links)들이 해석의 결과를 다르게 하며 학습 활동의 결과는 이러한 모든 인지 작용의 활동을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sup>37</sup> 메이어(Meyer)는 텍스트와 상호텍스트 그리고 상호맥락적 연결 고리들은 개개인의 사회적 역동성, 힘과 권리의 역학구조, 구조 내외의 규정들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도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sup>38</sup> 그래서 독자와 작가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가 위의 3가지 구성 요소와 맺는 관계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

35 Camilla Wiig, *읽글*, 47.

36 Richard Meyer, *읽글*, 354.

37 *읽글*, 355.

38 *읽글*, 364.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맥락성의 관점은 성서 읽기와 연관 지어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성서 본문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담론이 서로 연결되는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이다. 즉 각자의 본문이 가진 역할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본문들이 가진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게 다를지라도 이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발화하고 결국 유기적 해석을 통한 동일 이해 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문구의 “칼과 보습” 본문이지만 전쟁관과 야웨의 날에 대한 기대관이 다르다. 또, 미가와 요엘은 다른 문구를 가진 유사 본문지만 야웨의 날에 대한 기대관이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은 차이를 지난 연구의 칼과 보습 본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	예언자	신탁 전쟁관	야웨의 날의 기대관
이사야 (2:4b)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궁정 예언자	평화 신탁 전쟁 지양	- 이방 강대국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역사 흐름에 순응하여 순복할 것 - 하나님의 전 국가적 통치
미가 (4:3b)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모레셋 땅의 농사꾼	평화 신탁 전쟁 지양	- 다윗 왕조의 새 지도자가 구원 - 이방 강대국에 대한 심판과 응징 - 자국 중심주의
요엘 (3:10)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지어다”	경건한 가문 출신의 예루살렘 지역 활동가	전쟁 신탁 전쟁 종용 종말론적	- 다윗 왕조의 새 지도자가 구원 - 이방 강대국과의 전쟁 승리 - 자국 중심주의

예언자들의 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른 맥락과 주장이 담겨있

으나 상호텍스트성으로 해석하는 본문 연구는 이들의 유기적 연결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니는 앞선 예언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담아 사회정치적 주장을 내포하여 응답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어떤 본문이 선행 본문인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 상호텍스트성에서는 이들의 대화를 서로 논쟁을 하는 정치적 테이블로 초대하며 이는 독자가 본문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둘째, 편집자의 시각과 1차 독자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상호맥락성 연구이다. 편집 비평에서는 편집자의 의도와 1차 독자에게 전하려는 목적을 분석하고 편집자로 인해 성장해 가는 의도층과 독자층을 구별하는 연구이다. 담론에 대한 편집 비평적 해석은 결국 독자를 의식하고 있으며, 편집자는 본인의 맥락을 주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띄고 작업을 하게 되고, 독자는 이에 설득되거나 회피하게 된다. 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 관련되어 수행되는 것이며 획일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편집자는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본문의 연결 고리들(intertext)을 통하여 상호맥락을 공유하기를 요청한다. 플로리아니(Floriani)는 상호맥락성이란 모든 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화 형성에서 효과적인 관계 형성의 중요 포인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활동적인 의지가 있는지라고 설명한다.<sup>39</sup> 그러므로 참가자(독자)를 인식하지 않는 저지는 있을 수 없으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의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가 이 사야와 미가 그리고 요엘서의 저작 년 대와 저자의 의도 그리고 특징들을 연구하였고, 아쉽게도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하였다. 최근 편집 비평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더욱 세분화된 접근을 통하여 예언서들의 복

---

39 Ana Floriani, "Negotiating What Counts: Roles and Relationships, Texts and Contexts, Content and Meaning", *Linguistics and Education* 5 (1993), 241-274.

잡한 편집 과정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성경 본문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아래의 표는 간단히 정리한 표로서 목적은 저자의 의도가 다양하게 내포된 본문들이라는 것이다. 편집자와 독자의 관계를 연구하는 상호맥락성 연구는 이전 역사비평 연구부터 최근 공시적 비평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독자층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여전히 논의 중이다.

	본문	저작년대	의도
이사야 (2:4b)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8세기 6세기 5세기 <sup>40</sup>	- 강대국에 대한 순복 - 역사 흐름에 순응 요청 - 하나님의 역사 이행에 대한 믿음과 기대
미가 (4:3b)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포로기 <sup>41</sup> 포로후기 <sup>42</sup>	- 강대국 전복에 대한 구원사적 기대 요청 - 다윗 왕조 재건에 대한 기대
요엘 (3:10)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 어다”	페르시아 후기 <sup>43</sup>	- 계속되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 경험 이해 - 새로운 다윗계약 재건에 대한 고대 요청

40 이사야의 다양한 편집사적 논의는 스위니의 논의를 참고하라. Marvin Sweeney, *Isaiah 1-4 and the Post-Exilic Understanding of the Isaianic Tradition* (Berlin: De Gruyter, 1988).

41 편집비평에서 다루는 미가의 저작 년 대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장성길, “미가서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전망”, 『개혁논총』 20 (2011), 195-221; B. Stade, “Streiflichter auf die Entstehung der jetzigen Gestalt der alttestamentlichen Profetenschriften”, ZAW 23 (1903), 167-171; J. L. Mays, *Micah* (London: SCM Press 1976), 24-26.

42 B. Stade, “Bemerkungen über des Buch Micha,” ZAW 1 (1881), 161-172; Ina Willi-Plein, *Vorformen der Schrift exegese innerhalb des Altes Testaments*, BZAW 123 (Berlin: De Gruyter, 1971), 110-114; L. C. Allen,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242-261; Hans W. Wolff, *Micah: A Commentary*, trans. Gary Stansell (Minneapolis: Augsburg, 1990), 20-26.

43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욘 3:10aH 4:10a)-“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

마지막 세 번째로 성서와 현대 독자와의 이해와 해석 관계의 맥락을 살피고 더 나아가 이론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사회학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상호 맥락성 연구이다.<sup>44</sup>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현대의 독자들과의 어떠한 관련성을 맺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떤 성서 본문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약간의 문화연구(cultural study)와 수용사 연구(reception study)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본문이라도 어떤 문화권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출애굽기 본문이 서구권에서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해보면 타 문화권에서 읽는 출애굽기 본문이 종된 삶을 살았던 민족(예를 들어, 미국의 노예 제도 혹은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집단 기억 소유민족)에게는 그들의 경험이 녹은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본문 해석에 있어서 공동체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호맥락성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상호맥락성의 형성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경청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호맥락성은 교육이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는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는 중요 요소라고 주장한다.<sup>45</sup> 현대 사회정치학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기독교 리더십 교양을 위하여 상호 맥락성과 공공신학이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다.

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구약논단」 22집 4호 (2016), 14-43.  
 44 방법론과 적용에 대한 자료와 사회학적 연구 조사는 다음을 참고하라. Camilla Wiig, 윗글, 43-59.  
 45 윗글, 17.

#### 4. 상호맥락성 연구와 공공 신학

공공 신학자들은 마티(Marty)에 의해서 시작된 공공신학의 해석적 함의를 트레이시(Tracy)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인 “교회, 학문, 사회”라는 영역의 연구에 접목하여 성서신학의 측면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sup>46</sup> 트레이시는 “모든 신학은 공적 담론이다(all theology is public discourse)”라고 주장하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신학은 공유되고 투명하며 교회와 대학과 더 넓은 사회 공동체에서 사용 가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sup>47</sup> 피터스(Ted Peters)는 공공 신학은 “교회에서 수용되고, 교육 환경에서 반영되고, 더 넓은 문화 사회권 안에서 녹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8</sup>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준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디코스타(D’Costa)가 주장한 대로 사회, 정치, 문화는 모두 진화를 거듭하는데 종교는 정체되어 있으며 신학이 넘쳐나는 새로운 문화와 연계되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과 필요에 처했다고 주장한다.<sup>49</sup>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와 사회 정치적 환경에서도 공공 신학은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독교가 해야 할 반성이자 방향성 이해를 통한 과제이다. 피터스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학은 목회적 신학, 변증적 신학, 생태 신학, 정치적 신학, 그리고 예언적 신학의 5가지 공공신학 분야에서 교회와 교육계

46 Martin Marty,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 no. 4 (1974), 332-359; David Tracy, “Theology as Public Discourse”, *The Christian Century* 92, no. 10 (1975), 280-284.

47 David Tracy, *The Analogical Imagination* (New York: Crossroad, 1981), 3; David Tracy, “The Role of Theology in Public Life: Some Reflections”, *Word and World* 4, no. 3 (1984), 230; Gavin D’Costa,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 Church, Academy and Nation* (Oxford: Blackwell, 2005).

48 Ted Peters, “Public Theology: Its Pastoral, Apologetic, Scientific, Political, and Prophetic Task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2 (2018), 155.

49 Gavin D’Costa, *빛글*, 12-14.

그리고 사회공동체를 향해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며 공공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50</sup> 그의 주장은 아주 중요한 공공신학의 맥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현대의 다양한 복합 사회가 지닌 특징들과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접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해와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품는 노력이 없이는 올바른 신학의 틀을 세우고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51</sup>

이전의 예언서 해석들은 성서의 사회 공동체에 집중하였으나 현대의 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의 연결 시도가 없었으며,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새로운 예언서 읽기 즉 예언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를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최근 대두되는 정치적 논쟁과 교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건강한 기독교적 지도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공공신학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가 설립된 후에 지역 특색을 강조하며 최근 공공신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sup>52</sup> 또한, 공공신학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를 창간하고 계속된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이 팽배한 모양과 이를 통한 논쟁의 가속화는 공공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이스턴 로(Eastern Law)는 슬라이어마허의 철학적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공공 신학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수행하여 이러한 관계가 기독교

---

50 위의 글, 154, 175.

51 위의 글, 176.

52 매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신학」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며 연구와 교류를 진행 중이다.

신앙과 삶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였다.<sup>53</sup> 그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쫓는 자들이며 교회는 이러한 역할의 핵심점으로서 모든 사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 공동체로의 종교적 방향성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 공동체는 세속의 장이 아니라 연합의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에 관련하여 이전 질적 연구조사(qualitative research)에서 평가된 결과는 열린 대화와 건강한 나눔을 통한 이해와 조정이 아니라 금기시하고 소통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4</sup> 박우영은 한국 사회는 대립과 갈등을 겪을 때 빨리 수습하려고만 하는 경향성을 가졌으며, 김옥순은 정치, 사회, 문화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개신교 전통 속에서 올바른 인간 이해와 디아코니아 실천 즉 신앙인의 사회적 삶과 직접적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sup>55</sup> 성서의 맥락(context)과 오늘의 삶의 맥락(context)을 연결하여 성서의 살아있는 역동성을 적용하려면 성서의 세계, 성서 편집의 세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처한 사회적 상황의 세계가 연결되는 상호맥락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면 성서는 한낱 이론이나 옛날이야기로 머무르게 되며, 혹은 성서의 세계가 독자의 오늘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해

53 Easten Law, "Broadening the Reign of God in Every Sphere: Understanding Christian Ac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Schleiermacher's Philosophical and Christian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2 (2018), 61-62.

54 교회 안에서 사회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건강한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교육의 성격은 될 활동은 약 5% 미만으로 현저히 적으나 이슈에 대한 지도나 해석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한 참여자는 70% 이상으로 많았다. 박경식, *빛과*, 20.

55 박우영, "새로운 관계성을 향한 관용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관점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호 (2020), 259-292; 김옥순, "개신교 전통 속에서 인간존재 의미와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8집 (2020), 687-731.

석학적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현대 사회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지도하고 있는가?

## 5. 결론

통시적 비평에 의한 해석은 예언자들이 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차이를 그들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시대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예언자의 목소리가 같은 하나님을 통하여 전달받은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불일치를 해석해야만 하며, 혹은 성서의 독자가 읽는 시각에서의 공존에서 이해하기 쉬운 건강한 공시적 읽기가 필요하다. 성경에 공존하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향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논쟁과 갈등에 대한 길잡이가 아닌가? 여러 강대국과 주변국과의 전쟁 상황에서 예언자들의 사회정치적 논쟁은 강대국에 대한 엇갈리는 두 관점과 야웨의 날에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현대에도 급변하는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하여 성도는 항상 지극히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결과로 사상의 변화, 생각의 차이 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살아가는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일 삶에서 부딪히는 사회정치학적 이슈들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기독교 리더십이지 기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를 위해 선행한 방법론 연구를 통하여 예언자들의 담론이 대화와 토론의 형식으로 펼쳐져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서 편집자의 노력이 바로 논쟁 본문들의 나열을 통한 효과적인 대화와 변화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논의를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대화 이론은 모든 성서 본문이

공시적 관점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음을 통해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한다. 상호텍스트성 방법론은 이러한 대화가 본문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담론 이론은 모든 본문은 반드시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들과 확장된 관계성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관점을 주장한다. 상호맥락성은 이러한 모든 관계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해석들이 맥락이라고 하는 집단 기억과 경험적 사고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며 해석이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모든 유기적 관계들은 결국 해석되어야 할 사건은 자신과 타자 그리고 공동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 리더십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은 더더욱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공신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앙 공동체의 현실적 삶과 연결을 위한 성서학과 사회학의 학제 간 융복합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현실적인 분석과 적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상호맥락성 연구는 앞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보이기 위하여 중요한 해석학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구자용, “12소예언서의 이방민족들-이방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중심으로 본 12 소예언서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5권 1호 (2019), 54-91.
- 김성건,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715호 (2018년 7월), 30-41.
- 김옥순, “개신교 전통 속에서 인간존재의미와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8집 (2020), 687-731.
- 김한민, “온라인 루머 행동에 대한 온라인 환경 요인의 영향 연구”, 「디지털융복합 연구」 18권 2호 (2020), 45-52.
- 남정호, “갈수록 심화되는 정치 이념 양극화...무엇이 문제인가”, 2019.12.20.,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60>
- 디디에 에리봉, 「미셸 푸코」(박정자 옮김), (서울: 시각과언어, 1995). 원제는 Didier Eribon, Michel Foucaul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문병기, “탄핵 가결 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분야 신평속도”, 2017.12.0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209/87651982/1>
-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이정우 옮김),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원제는 Michel Foucault, L'ordre du discours (Paris: Galimard, 1971).
- \_\_\_\_\_, 「말과 사물」(이규현 옮김), (서울: 민음사, 2012). 원제는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1966).
- \_\_\_\_\_, 「임상의학의 탄생」(홍성민 옮김), (서울: 인간사랑, 1996).
-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박종소/김희숙 옮김), (서울: 길, 2006).
- 박경식, “예언자들의 담론에 근거한 통일 논쟁 방향 찾기-대화이론과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4, no. 4 (2020), 1-36.
- 박경철, 「한 권으로 읽는 구약성서」(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 박우영, “새로운 관계성을 향한 관용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관점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0호 (2020), 259-292.
- 서명수, “김찬국의 ‘삶의 현장신학’의 구성과 성서적 배경-3·1운동과 출애굽 진승, 예언전승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97집 (2019), 101-124.
- 손일신, “극단의 정치 자괴감...책임통감, ‘광장 대립’ 국회 존재의미 없어”, 2019.12.16.,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53908>
- 오민석, 「현대문학이론의 길잡이」(서울: 시인동네, 2018).
-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욥 3:10aH 4:10a)-“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구약논단」 22집 4호 (2016), 14-43.
- 유윤종, “정의’와 ‘의’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정치와 한국교회의 정치적 책임”, 「구약논단」 79집 (2021년 3월), 308.
- 이애리, “온라인 토론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과 개인 및 집단 정체성, 토론의 질 간의 영향 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21권 3호 (2019), 63-86.

임걸, “정치사회적 책임공동체로서의 교회”, 『기독교사상』 49집 (2005년 6월), 258-279.

임상국, “주전 8세기 예언의 사회학적 이해”, 『신학과세계』 41호 (2000), 39-40.

장성길, “미가서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전망”, 『개혁논총』 20 (2011), 195-221.

장일선, “예언과 사회체제”, 『신학연구』 30집 (1989), 137-166.

조형국,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담화 내용”, 2019.1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71500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71500001)

허재영/정다빈/김석우/이재묵, “이념적 양극화는 지속되는가?—19대 국회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의 경험적 연구—”, 『통일연구』 23집 2호 (2019), 33-37.

허윤철/박홍원, “필리버스터 시기 TV를 통한 이슈 접촉이 이슈 중요성 지각과 대면/온라인 의견 표출에 미친 영향”, 『방송통신연구』 105호 (2018), 118-147.

Albers, Peggy, Teri Holbrook, and Amy Seely Flint, *New Methods of Literary Research* (New York: Routledge, 2014).

Albertz, Rainer, James Nogalski, and Jakob Wöhrle(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Berlin: Walter de Gruyter, 2012).

Allen, L. C.,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Bedford-Strohm, Heinrich, Florian Höhne, and Tobias Reitmeier,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Berlin: LIT, 2013).

Blenkinsopp, Joseph,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Cole, Michael, *Cultural Psychology: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Coser, Lewis, *On Collective Memory: Introduction to Maurice Halbwach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2).

D' Costa, Gavin,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 Church, Academy and Nation* (Oxford: Blackwell, 2005).

- Duhm, Bernhard, “Anmerkungen zu den zwölf Propheten”, *ZAW* 31 (1911), 161-204.  
 \_\_\_\_\_, *Israels Propheten* (Tubingen: Mohr, 1922).
- Fewell, Danna N., *Reading Between Texts: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Floriani, Ana, “Negotiating What Counts: Roles and Relationships, Texts and Contexts, Content and Meaning”, *Linguistics and Education* 5, no. 3-4 (1993), 241-274.
- Foucault, Michel,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Éditions Gallimard, 2014).
- Green, Barbara, *Mikhail Bakhtin and Biblical Scholarship: An Introduction* (Atlanta: SBL, 2000).
- Heschel, Abraham,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 Lave, J., “Changing Practice”, *Mind, Culture, and Activity* 19, no. 2 (2012), 156-171.
- Law, Easten, “Broadening the Reign of God in Every Sphere: Understanding Christian Ac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Schleiermacher’s Philosophical and Christian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2 (2018), 61-83.
- Lim, Sung Uk, “Jonah’s Trans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Jonah from the Bakhtinian Perspective of Authoring and Re-authoring”,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 no. 2 (2008): 245-256.
- Marty, Martin,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 no. 4 (1974), 332-359.
- Mays, J. L., *Micah* (London: SCM Press, 1976).
- Meyer, Richard, Prisca Martens, Alan Flurkey, and Risa Udell, “Complicating Predictability: Textuality, Inter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Beginning Reading and Writing”, *National Reading Conference Yearbook* 47 (1998), 354-365.
- Mikhail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_\_\_\_\_,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H.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Newsom, Carol, “Bakhtin, the Bible, and Dialogic Truth”, *The Journal of Religion* 76, no. 2(1996): 290-306.
- Nogalski, James, “Recurring Themes in the Book of Twelve: Creation Points of Contact for a theological Reading”, *Interpretation* 61, no. 2 (2007), 125.
- Peters, Ted, “Public Theology: Its Pastoral, Apologetic, Scientific, Political, and Prophetic Task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2 (2018), 153-177.
- Rogoff, B.,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chart, Aaron, “The First Sec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Hosea-Joel-Amos”, *Interpretation* 61, no. 2 (2007), 138-139.
- Schreier, Robert,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Orbis Books, 1985).
- Stade, B., “Bemerkungen über das Buch Micha,” *ZAW* 1 (1881), 161-172.
- \_\_\_\_\_, “Streiflichter auf die Entstehung der Jetztigen Gestalt der alttestamentlichen Profetenschriften”, *ZAW* 23 (1903), 167-171.
- Sweeney, Marvin, *Isaiah 1-4 and the Post-Exilic Understanding of the Isaianic Tradition* (Berlin: De Gruyter, 1988).
- \_\_\_\_\_, “Sequence and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the Twelve”, in *Form and Intertextuality in Prophetic and Apocalyptic Literatur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75-188.
- \_\_\_\_\_, “Synchronic and Diachronic Concerns in Reading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Rainer Alvertz, James Nogalski, and Jakob Wöhrle(eds.), *Perspectives o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Berlin: Walter de Gruyter, 2012), 21-33.
- \_\_\_\_\_,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Tracy, David, *The Analogical Imagination* (New York: Crossroad, 1981).
- \_\_\_\_\_, “Theology as Public Discourse”, *The Christian Century* 92, no. 10 (1975),

280-284.

\_\_\_\_\_, “The Role of Theology in Public Life: Some Reflections”, *Word and World* 4, no. 3 (1984), 230-239.

Trible, Phyllis,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Tulving, Endel, “Episodic and Semantic Memory”, Endel Tulving and Wayne Donaldson (eds.), *Organization of Memo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381-403.

von Rad, Gerhard, *The Message of the Prophets* (San Francisco: Harper, 1972).

Wiig, Camilla, Kenneth Silseth & Ola Erstad, “Creating Intercontextuality in Students Learning Trajectories”, *Language and Education* 32, no. 1 (2018), 43-59.

Willi-Plein, Ina, *Vorformen der Schrift exegese innerhalb des Altes Testaments*, BZAW 123 (Berlin: De Gruyter, 1971).

Wolff, Hans W., *Joel and Amos*, trans. W. Janze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_\_\_\_\_, *Micah: A Commentary*, trans. Gary Stansell (Minneapolis: Augsburg, 1990).

검색어

담화이론

상호맥락성

사회정치학적 읽기

기독교 리더십

공공신학

## Exploring Christian Leadership based on the Hermeneutics of Sociopolitical Glocal-Discourses of the Prophetic Books: Dialogism, Inter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Kyung-Sik Park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hermeneutics of several methods to provide an effective proposal for how to deal with current sociopolitical debates. As a Christian lead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congregation members live in a society where political and social debates likely occur in everyday life. Likewise, prophetic speeches engage with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However, we have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t prophetic views toward one issue close to our social situation.

Based on a previous study on prophetic debates using Bakhtin's dialogism

www.kci.go.kr

and intertextuality, I suggest that Foucault's discourse theory and another emerging method, intercontextuality (which signals a promising new paradigm in social study), are very helpful tools for interpreting why prophets debate, how we understand the difference, and how biblical interpretation is applied to current society. Intercontextuality proves that interpretation does not result in a fixed notion but rather in dynamics. In particular, it must relate with a society that communicates with collective memory and knowledge of its members. In this hyper-connected society, leaders might apply intercontextuality to connect religious and social life and understand the needs of public theology.

## Keywords

Discourse theory

Intercontextuality

Sociopolitical reading

Christian leadership

Public theology

- 투고일: 2021년 7월 15일
- 심사일: 2021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2일

[www.kci.go.kr](http://www.kci.go.kr)